

대한뉴팜(주)

대한뉴팜, 유방염예방 다가백신 ‘히프라스타박’ 런칭 세미나 개최

대한뉴팜과 한국히프라는 지난 4월 26일 경남 부곡 및 경주를 시작으로 27일 전남 광주, 28일 천안과 서울에서 젖소 농가 및 수의사를 대상으로 유방염백신 ‘히프라 스타박’ 효능을 알리는 제품 런칭 세미나를 개최했다.

‘히프라 스타박’ 백신은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과 대장균(*E.coli*)에 의한 젖소 유방염을 예방하는 다가백신이며 유럽의약청(EMA)에 최초로 등록된 유일한 유방염 백신으로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된 제품이다.

세미나에서 대니 잘두엔도 히프라 스페인 축우담당 매니저는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해 생성되는 다당류의 바이오필름 생성을 억제하거나 부착인자를 무력화시켜 유방염을 예방하는 유일한 백신으로 응고효소 음성포도상구균(CNS)에 대한 교차방어가 가능한 제품이며, 최근 낙농 선진국인 유럽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대장균성 유방염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대장균군에도 교차방어가 가능한 제품”이라고 소개하였다.

이어서 “히프라 스타박은 전 세계 50여개 국가에 등록되어 판매 중으로 국내, 외 실험결과 유방염예방은 물론 유량증가, 유질개선, 체세포수 감소 등 생산성 개선 효과를 이끌어냈으며, 백신 후 발생하는 부작용(화농, 체세포수 상승)이 아직까지 보고된 적이 없다.”고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어 “내성문제 등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항생제 사용을 줄여가고 있다. 유방염 역시 진단과 백신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질병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고 발표했다.

한편, 낙농 농가에서 유방염 질병에 대한 높은 관심에 따라 ‘히프라 스타박’ 세미나에도 농가 및 수의사 등 참석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워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카길애그리퓨리나, 한국 축산 지속 성장 위한 조력자 될 것” 선포

(주)카길애그리퓨리나(대표 이보균)는 한국 진출 50주년을 기념해 지난 5월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카길 한국 50주년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를 위해 최고경영자(CEO)인 데이비드 맥레넌(David MacLennan) 회장이 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 직접 한국 시



장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데이비드 맥레넌 회장은 1991년 카길에 입사, 런던과 제네바 등지에서 금융, 리스크 관리, 에너지, 동물성 단백질 플랫폼 관련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맥레넌 회장은 “카길은 한국에서도 식품 안전과 동물영양으로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도록 본사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균 카길애그리퓨리나 대표는 “축산 농가에게는 미래 축산에 필요한 고품질 사료와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공급하고,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는 안전한 고급 단백질 식품을 제공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길은 이날 행사에서 한국 축산의 지속성장을 위해 최적의 동물 영양 솔루션을 제공하여, 농가 생산성 향상과 안전 축산물 생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선포했다. 특히 최신 농장 운영 프로세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농장의 디지털화 그리고 안정적인 2세 경영승계 프로그램 통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미래의 축산은 친환경 운영 방식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하에 바이오가스 발전소 확산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